# 광주세계수영대회 현장운영계획 실전 점검 나섰다

## 市, 여수오픈워터 경기장 찾아 유관기관 협력방안 모색

## 광주 도시관광·전남 바다자원 활용 관광코스 공동 개발

광주시가 남부대 주경기장과 선수촌 현장점검에 이어 여수오픈워터 수영경기장을 점검하는 등 실전같은 현장운영계획 점검에 돌입했다.

시는 18일 오후 여수해양엑스포 공원에서 광주시·대회조직위원회·여수시 여수해양엑스포 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오픈워터수영 경기장 현장 보고회를 열고 각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광주시가 그간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 계획 보고회'에서 논의한 협업사항을 대회 현장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 해양엑스포공원 앞 바다에서 오픈워터수영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해역이용과 공유수면 점용, 여수시민들의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광주지역의 도시 관광과 전남지역의 바다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코스 공동 개발, 광주수영대회를 계기로 하는 남도문화 관광의 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4월 착공 예정인 관람석 설치 및 방송·운영·편의시설 임시 설치 공사에 앞서 선수·방송 등의 편의를 고려한 최적의 시설 배치, 원활한 공사 진행 협조 방안, 경기진행에 따른 선수 동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여수지역에 별도의 본부호텔 운영, 식음료 안전, 수송대책, 의무도핑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 간 의견을 교환하고, 경기장 운영과 시설 예정지를 관계 기관과 함께 둘러보며 현장 적용성을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오픈워터수영 경기는 장시간 야외에서 열리는 만큼 관람객에 대한 폭염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서면으로 구상한 각종 운영계획이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실행력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사실상 공동 개최 도시인 광주와 여수가 힘을 모아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고, 특히 대회를 계기로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워터수영은 5㎞, 10㎞, 25㎞ 코스의 장거리 경기로, 선수권대회는 7월13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마스터즈대회는 8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앞 바다에서 열린다.

/최권범 기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보도블록 정비**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등의 해빙기를 맞아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관내 일곡동 주택가 인근 상가 지역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4월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5개 분야에 걸쳐 해빙기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주북구 제공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본격화

## 20개사 2년간 2억씩 지원…오늘 전남TP서 설명회

전남도는 18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참여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 기준 3년(2016-2018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기업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1% 이상(3년 평균) ▲고용증가율 5% 이상(3년 평균) ▲대비 직·간접수출비중 5% 이상(3년 평균), 4개 기준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등 5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별로 연간 1억원, 2년간 최대 2억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체계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남도는 신청 기업에 대해 시·군에서 자격 요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도에 추천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남형 강소기업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어 지원 프로그램 수행 방법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희망 기업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60·3761,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1-729-2530·2532)

/김재정 기자

# 광주상수도본부 '빛여울수' 우수성 알린다

## 내일부터 사흘간 대구 EXCO '워터코리아'서 홍보관 운영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19 워터코리아(WATER KOREA)'에서 광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사기간에 홍보관을 운영해 광주 수돗물 '빛여울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물을 비치해 맑고 깨끗한 광주 수돗물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사 둘째날에는 특·광역시 수질연구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수도 연구 발표회에서 수질연구소 강인숙 연구기획담당이 정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전산유체역학과 실험계획법을 연계한 플록형성지 분배수로 최적화 방안 도출 연구'라는 제목의 우수 연구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 시작해 18회째를 맞은 워터코리아(WATER KOREA)는 상·하수도 신기술 기자재 전시회로,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학술발표 등도 진행된다.

관련 기업들의 기술홍보와 첨단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산업 관련 최대 박람회로 성장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황봉주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국내외 물 산업의 현주소와 동향,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빛여울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다"며 "상수도 직원 뿐만 아니라 물 분야 관련 지역업체와 관심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 올해 첫 수요인권강좌 내일 개최

##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 강연

광주시가 주관하는 수요인권강좌의 올해 첫 강연이 20일 오후 3시 광주공연마루(옛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이 '모두가 포함되는 인권도시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성 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에 관해 이야기 한다.

김 소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한국다양성연구소장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인권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수요인권강좌를 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0여명 규모로 7월까지 총 10차례 진행되며 일반시민도 수강할 수 있다.(문의 광주시 민주인권과 062-613-2072) /김다이 기자